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 시대의 주역 항공사,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

대한항공은 1969년 민항으로 출발해 현재는 우리나라와 세계를 잇는 가교로서 또 세계화의 주역으로서 경제발전에 일조해 왔으며, 명실공히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 10위권의 항공사로 성장했다. 세월의 연륜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한항공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며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 시대의 주역 항공사,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로 발전하고 있는 국민기업이다.

이번 호는 특수업무부의 추천으로 봄이 오는 길목에서 '대한항공 김해공장'을 찾아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서진원 차장과 김태동 방화관리자를 만나 김해공장의 현황과 방재시설, 방화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조 대 영 · 협회 경영기획부 차장

① 건물구조 및 일반사항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에 소재한 '대한항공 김해공장'은 대지면적 21만평, 연면적 8만평, 건물동수 60여동의 대형공장으로 자체 보유 항공기에 대한 정비와 항공기 부품 생산수출, 외부 항공기, 헬기 수리 및 개조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항공우주사업본부에서는 자주국방 실현과 항공산업국로의 도약을 목표로 항공우주산업본부를 설립하면서 우리나라 항공기 제작산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헬리콥터 및 전투기 생산과 각종 군용항공기 창급정비, 개조 및 성능개량사업으로 국방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위성체 구조물 전문기업으로서 이미지를 다져왔으며 통신위성용 안테나와 우주발사체 로도 점차 그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민항기, 군용기, 위성체의 설계, 개발, 생산, 판매분야와 항공기 정비 및 개조분야에서 ISO 9001과 세계 항공우주선산업 품질경영시스템 AS 9100, 국방 품질경영시스템 9001 인증을 획득하여 민수와 방산부문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완벽한 품질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② 소방시설 현황

건물의 특성과 가장 적합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동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함께 Form-Water 소화설비, Water Sprinkler, 소화전, 가스계 소화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건물에 법정소요수 이상의 소화기를 각각 설치하였다.

또한 공장 내의 작업환경에 적합하도록 Under-



Wing Form-water Monitoring Nozzle, 엔진펌프, 1,600톤에 달하는 소화용수 탱크를 설치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③ 방화관리 및 조직연합

광활한 건물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속성과 함께 최고의 소방장비와 훈련된 조직이 요구되어 자체 내 소방대를 편성·운영하고 있다. 소방대는 36명이 24시간 교대근무하고 있으며, 최신 화학소방차 4대를 포함하여 9대의 소방차, 1대의 지휘차로 화재신호 감시 또는 화재신고접수 후 2분내 현장출동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외부기관(공항공사 등)과 소방차 상호지원협정 및 관할소방서와의 상호 응원협정서에 의거하여 화재시 지원 체제를 구축, 연1회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위소방대 운영, 각 룰별, 시설물별 화기책임자 지정으로 최소 단위별 화기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

④ 소방훈련과 인명 대피 훈련

방화관리자와 안전관리자 주관으로 화재 취약지구를 선정, 작성한 소방시나리오에 의해 대테러대비 위기상황 대응훈련, 모형항공기를 이용한 항공기화재 모의소방훈련을 불시 실시한다. 비상시 자위소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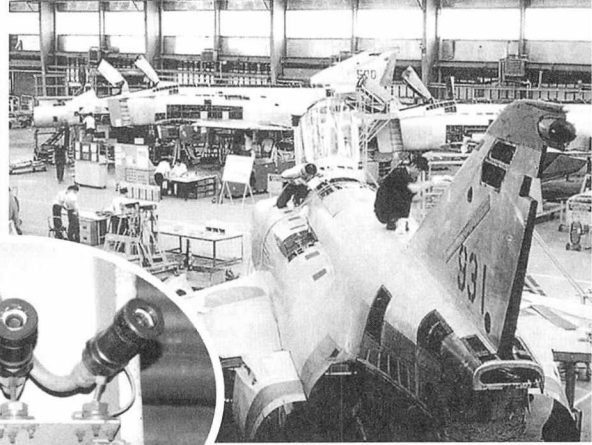
대 조직에 의한 개인별 임무에 따라 대피 및 반출반은 인명 검색구조 대피유도 및 자체 소방대의 신속한 건물진입과 인명구조를 지원하며, 자체 안전보건센터를 운영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있다.

⑤ 경영진의 소방, 방재에 대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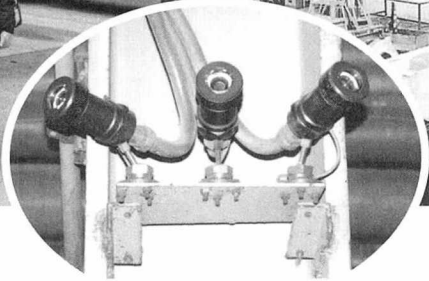
공장의 특성상 건물 내 항공기가 입고 되고 많은 임직원이 상주하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더욱 큰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는 바 방재 및 안전에 기울이는 관심이 지대하며, 경영방침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안전에 관한 경영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나은 작업환경을 위해 전 임직원은 이 방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에서만 볼 수 있는 1995년도 도입한 '무재해 장려금 제도'와 1996년도에 도입한 '무사고 안전장려금 제도'를 전사적으로 도입하는 등 경영진이 많은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사고 안전장려금 제도'는 각 부서, 공장별로 작업성적, 작업강도, 소속 인원수를 기준으로 무재해 1백일 기간을 산정하고 무재해 목표 달성 및 지속에 따라 해당 공장에 장려금과 보너스를 지급하는 「무재해 달성장」을 수여하는 제도이다.



김해공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유사시 제일 먼저 출동하는 소방대앞에서 서진원차장(오른쪽)과 김태동(왼쪽) 방화관리자



각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적외선 감지기

항공기 정비 장면

⑥ 화재예방 업무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안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예방은 치료에 앞선다.’는 평범한 진리를 가지고 항상 임한다는 서진원 차장은 “일생에 한번 있을 수도 또는 영원히 없을 수도 있는 대형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사전에 많은 비용을 화재예방에 투자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한번 일어났을 때 수반되는 엄청난 손실과 귀중한 인명피해를 감안하여 선진 소방을 향한 의식전환이 요구 된다.”고 한다.

“사회적으로 대형 참사가 발생하게 되면 매스컴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해서 생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기보다는 평소에 화재예방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간과한 결과물이라 생각된다.”고 한다.

또한 서차장은 “소방시설의 설계와 시공단계부터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최선의 설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사용자 입장에서의 시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소방시설의 인수, 유지관리자는 10년 후에도 인수시

최상의 상태가 그대로 지속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⑦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험관리에 대하여

20여년 동안 방화관리자를 수행하고 있다는 서진원 차장은 협회에서 연2회 실시하고 있는 주요건물에 대한 소방설비 작동, 정밀점검을 수년간 받아왔으며, 협회의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선점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조언과 함께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소방설비 유지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서차장은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소방분야에 대한 전문가 그룹으로서 사업장별로 새로운 시각으로 수행하는 점검이 대형건물의 소방설비 유지관리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마쳤다. ☺